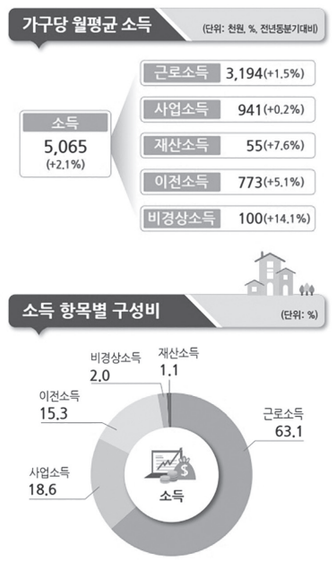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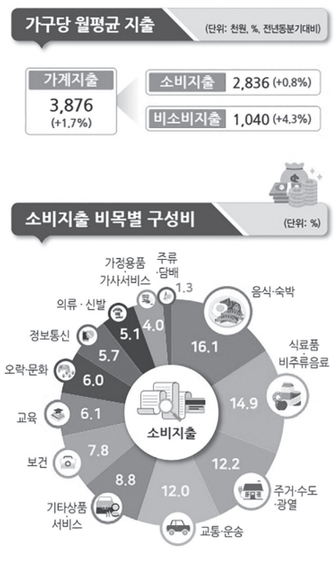
월 506만원 벌어도 지갑 닫았다… 소득 늘어도 실질소득 제자리

가구소득 506만5000원… 8분기 연속 증가세
실질소득 보합 그쳐… 근로·사업 소득은 감소
가계지출, 전년比 1.7% 증가한 387만6000원
소비지출 0.8% 증가… 실질소비지출 1.2% 감소
평균소비성향 0.5%p 하락… 4분기째 마이너스





실질소득은 가계 경제활동의 핵심인 근로소득(-0.5%)와 사업소득(-1.9%)에서 모두 감소했다. 재산소득(5.5%), 이전소득(3.0%), 비경상소득(11.8%)는 증가했다.

이지은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2분기에 실질 사업소득이 많이 감소했는데, 자영업자수가 감소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실질근로소득 감소는 1인가구 비중 증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자 가계는 소비를 더 큰 폭으로 줄였다.

2분기 가계지출은 387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세금,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은 104만원으로 4.3% 증가했지만, 소비지출은 283만6000원으로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2분기 가계 소비지출 증가율(0.8%)은 2020년 4분기(-2.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물가상승의 영향을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0.7%)에 이어 2분기째 마이너스다.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는 기타상품·서비스(25만원, 13.0%), 음식·숙박(45만7000원, 3.3%), 보건(22만원, 4.3%), 식품·비주류음료(42만3000원, 1.8%), 주거·수도·광열(34만7000원, 1.8%) 등이 증가했다.

하지만 교통·운송(34만원, -5.7%), 가정용품·가사서비스(11만4000원, -9.9%), 의류·신발(14만5000원, -4.0%), 정보통신(16만1000원, -1.5%), 주류·담배(3만7000원, -0.6%), 교육(17만3000원, -0.6%), 오락·문화(17만1000원, -0.4%) 등은 감소했다.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타난 경기 부진과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이 소비 위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은 과장은 "자동차나 가전기기 등 금액이 큰 내구재의 지출 금액이 낮아지면서 실질 소비지출을 감소시켰다"며 "사회·경제적 불확실성들이 경제 심리나 내수 회복을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은 2분기 소비지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2분기 가구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0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가계 흑자액은 118만8000원으로 3.3%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70.5%로 전년 동분기 대비 0.5%포인트(p) 하락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지난해 3분기(-1.3%p) 이후 4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가계 총소득은 8분기 연속 증가했고, 실질소득은 보합을 나타냈다"며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위한 2차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 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광양경자청,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투자협의 논의

광양만권 산업단지 시찰·회원사 간담회, 중국 기업 투자확대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8월 29일 청사 상황실에서 까오천(高晨) 주한중국상공회의소 회장과 임원진들을 만나 광양만권의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경제·무역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한중국상공회의소는 225개 회원사로 구성된 경제단체로, 화웨이·BYD·중국은행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에 전남분회를 설립했으며, 이번 회장단 방문은 광양만권의 산업적 잠재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날 까오천 회장은 "광양만권은 항만과 산업단지, 지리적 이점이 집적된 한국의 대표 산업거점으로, 중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중국 기업인들이 광양만권에서 더 많은 사업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광양만권은 한국내 중국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우리지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양국 경제 협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중국상공회의소가 광양만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 협력을 넓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회장단은 28일 광양에 도착해 전

남분회 회원사와 간담회를 갖고, 회원사 기업인 분유 생산업체 에이치에이엠(HAM)과 위생용품 제조업체 킹톱스 등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산업단지 입지와 물류 인프라를 직접 확인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주시, 핵심전략산업 8개 기업 593억 투자유치

인공지능(AI)·자동차·에너지 관련 기업… 고용창출 189명 기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9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인공지능(AI)·자동차·에너지 산업 8개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투자금액 593억원, 고용창출 189명 규모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8개 투자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투자협약 기업은 ▲㈜커먼코딩(서울) ▲㈜두리에너지(경기) ▲㈜이인(광주) ▲신소재산업㈜(광주) ▲㈜이노특장(전남) ▲㈜디에이치오토아이(경기) ▲㈜인프라엑스(광주) ▲㈜한아(광주) 등 지역기업 4개사와 타지역기업 4개사이다.

산업 분야로는 인공지능(AI) 융복합 기업 2개사와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기업 각각 3개사이다.

광주시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1:1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별 투자유치 전담조직과 기업지원 전담팀이 협력해 비즈니스 컨설팅, 자문, 행정 지원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커먼코딩은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 '커먼코딩 빌더'를 통해 누구나 인공지능(AI)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스마트에너지·스마트팜·스마트축사 등 다양한 산업군에 인공지능 융합기술(AIoT)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 본사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에 인공지능 거점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리에너지는 태양광시공업체로 광주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연구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다. 플러그인태양광과 발전사업자의 VPP(가상발전소)정밀 발전량 예측모델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융합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이다.

㈜이인은 드론 및 무인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고정형 무인항공기체 및 소방드론 부품제조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100~300kg급 고중량 드론을 통해 재난현장의 초기 진압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대응과 연계한 드론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소재산업㈜은 광주 하남산단에 입주해 자동차산업 기반을 다져온 중견기업으로 자동차 차체부품 제조업을 주력으로 한다. 친환경 액상도장설비 구축 등 친환경 공정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이노특장은 전남 나주 소재 기업으로 자동차 차체 및 특장차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쌓아왔다. 광주에 특장차 적재함 및 부품 생산설비 공장을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디에이치오토아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용 스마트 부품과 인공지능(AI) 비전시스템 기반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본사를 광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스마트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 융합 기술을 앞세워 광주 미래차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엑스는 신규 법인임에도 인공지능(AI)과 인프라를 접목한 특화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에 인공지능(AI) 기반 도로안전관리시스템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을 구축을 위해 투자를 진행한다.

㈜한아는 광주 진곡산단에 본사를 두고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온 기업이다. 농업용 방제·방역 장비와 인공지능(AI) 기반 노면 로봇 청소기 개발 및 생산공장 신축에 투자할 예정이다. 농업·환경 분야의 혁신 장비 생산을 통해 광주 산업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해 광주에 투자하기로 결정해 준 기업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투자기업이 광주에서 성장하고 미래산업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